

7연전을 버텨라 ... 마운드 '초비상'



맹텐

KIA 타이거즈, 비 때문에 창원에 발 묶여 ... 월요일 경기 진행 오늘 맹텐 선발 출전
19일 부처님오신날에는 주간 경기까지 열려 마운드 운영·컨디션 관리가 관건



KIA 타이거즈가 긴 한 주를 보내게 됐다.

주말 원정에 나섰던 KIA의 발이 비 때문에 창원에 묶였다. KIA는 16일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즌 6차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2시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도 주말 경기가 취소될 경우 월요일에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KIA는 '월요일 경기'를 치르고 안방으로 돌아온다.

월요일부터 7연전을 펼쳐야 하는 한 주, 부처님 오신날인 19일에는 주간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는 만큼 마운드 운영과 컨디션 관리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KIA는 16일 출격을 준비했던 맹텐을 하루 밀어 17일 그대 NC전에 투입한다.

맹텐은 시즌 4번째 등판이었던 4월 23일 삼성전에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이후 세 경기에서 1승을 더하는 데 그쳤지만 맹텐이 출격한 최근 4경기에서 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승리'를 부르는 맹텐이 됐지만, 이닝은 아쉬움이다.

11일 LG전에서 투구수가 115개에 이르면서 4.1이닝에서 맹텐의 등판이 멈췄다. 올 시즌 7경기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경기는 지난 5일 롯데전 6.2이닝이다. 7경기에서 맹텐이 책임진 이닝은 39.2이닝으로 부족하다.

선발진 이닝이 부족한 올 시즌, 월요일 경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허약한 불펜은 더 부담 많은 한 주를 보내게 됐다. 맹텐이 이닝에 초점 맞춰 한 주의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한다.

이의리의 기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막내' 이의리는 18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선다.

이의리는 '특별 관리'가 필요한 팀의 미래다.

이의리는 4월 8일 키움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뒤 4월 15일 광주 롯데전, 4월 22일 잠실 LG전을 통해 1주일 간격으로 등판했다. 4월 28일 광주 한화전에서 처음 5일턴을 소화한 이의리는 지난 4일 사직 롯데전이 비로 취소되면서 7일을 쉬고 출격했다. 그리고 다시 12일 광주 LG전에서 5일 휴식 뒤 6번째 등판에 나섰다.

앞선 등판 로테이션은 큰 무리 없이 이뤄졌다. 투구수도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18일 경기에 나서게 되면 정상 로테이션으로는 23일까지 한 주 두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처럼 투구수 조절로 화일 모두 출격을 하게 될지, 임시 선발이 투입될지도 관심사다.

마운드에서는 세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타석에서는 집중력이 절실하다. 17·18일 야간경기에 이어 부처님 오신날인 19일에는 오후 2시에 경기가 진행된다. 20·21일 다시 야간 경기 이후 22일 오후 5시, 23일 오후 2시 경기를 치러야 한다.

KIA는 앞선 15일에도 공중과 중계 여파로 오후 5시가 아닌 2시에 그라운드에서 오르는 등 들쭉날쭉한 경기 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후 2시·5시에 시작하는 주말 '오후 경기'의 승률도 좋지 않다. KIA는 14일 NC전 3-7 역전패로 주말 13경기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오후 2시에 시작했던 지난 5일 어린이날 경기가 유일한 '오후경기' 승리다.

'오후경기' 약점을 날리기 위해서 프로다운 컨디션 관리와 집중력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18일 '의리의리한데이' 20일 '람사르데이'

'의리' 티셔츠 선물·'람사르 유니폼' 입어

KIA 타이거즈가 SSG 랜더스와 주중 시리즈에서 특별한 행사를 연다. 18일 '의리의리한데이'를 갖는 KIA는 20일에는 '람사르데이'를 연다.

KIA는 이의리의 선발 등판이 예정된 18일을 '의리의리한데이'로 정해 이날 입장 관객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의리' 티셔츠를 나눠준다. 티셔츠에는 이의리의 투구 실루엣과 '의리'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또 이날 챔피언스 필드 모든 좌석은 30% 할인 판매된다. 이의리마킹 키트도 30% 할인해서 판매할 예정이다.

'의리'라는 이름을 가진 팬을 공모해 시구, 시타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일에는 KIA 선수단이 '람사르데이' 유니폼을 입고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게 된다.

이번 행사는 KIA 구단과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이하 람사르 센터)가 함께 습지 보전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과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KIA 선수단은 청록색으로 특별 제작한 '람사르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선수단 모자에는 청록색의 'T'로고가 수놓아진다.

입장객에게는 람사르센터가 준비한 예코백과 배지 등 습지 보전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이날 시구는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이 하고, 시타는 베른 하르트젤러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맡는다. 국립생



태원과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는 람사르센터와 함께 습지 보전 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안에 자리한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는 전 세계 4개의 람사르지역센터 중 한 곳으로,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를 계기로 설립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4연패 '수령' ... 빛바랜 엄원상 복귀골

인천에 1-2 패배 골찌 탈출 실패

광주FC가 4연패의 늪에 빠졌다.

광주가 지난 15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 2021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2패를 기록했다. 부상에서 돌아온 엄원상이 두 경기 만에 선제골을 장식하면서 골행진을 재개했지만, 팀의 패배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전반 12분 펠리페가 선제골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았다.

인천 전역으로 파고든 펠리페가 골키퍼 김동현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앞선 경합 과정에서 헤이스의 오프사이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페널티킥 선언이 번복됐다.

전반 23분, 이번에는 펠리페가 웃었다.

중앙에서 돌파하던 펠리페가 뒤로 공을 넘겨졌고, 오른쪽에서 올라가던 엄원상이 공을 받아 왼발로 슈팅을 날렸다. 공은 인천의 왼쪽 골대를 가르면서 엄원상의 복귀골이자 시즌 2호골이 완성됐다.

3월 20일 제주 원정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던 엄원상은 지난 11일 수원FC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교체 출장에 복귀전을 치렀다. 그리고 이날은 선발 출장에 골까지 기록했다.

하지만 엄원상이 결승골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

후반 시작 3분 만에 광주가 동점골을 허용했다. 인천의 무고사가 강운구의 패스를 받아 머리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가 바로 김봉진을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15분에는 펠리페가 부상으로 빠졌다. 김

호영 감독이 동시에 엄지성을 빼고 이요프와 이순민을 투입했다.

하지만 추가골에 실패한 광주가 경기 종료 직전 땅을 쳤다.

후반 44분 송시우의 봉쇄에 실패하면서 슈팅 기회를 내줬고, 결승골을 허용했다.

강후보로 꼽히는 수원FC, 인천과의 원정에서 잇달아 패배를 기록하면서 광주(승점 13)는 그대로 최하위 12위에 머물렀다. 11위 FC서울과 승점 1점 차이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서울이 광주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다.

역시 두 경기를 덜 치른 성남FC가 승점 16으로 10위에 있다.

광주보다 1경기를 더 소화한 강원FC가 승점 16으로 9위에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반도프스키 분데스리가 40호 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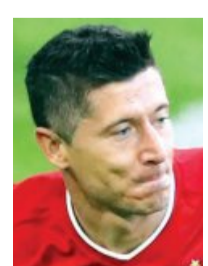
'레전드' 게르트 뮐러와 타이 기록

'독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3·바이에른 뮌헨·사진)가 정규리그 40호 골을 쏘아 올리며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역대 개인 한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썼다.

레반도프스키는 16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슈바르츠발트-슈타디온에서 끝난 프라이부르크와 2020-2021 분데스리가 3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페널티킥 선제골을 터뜨려 팀의 2-2 무승부에 기여했다.

이로써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리그 28경기에서 40골을 넣어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레전드' 게르트 뮐러(40골)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뮐러는 1971-1972시즌 분데스리가 40골을 작



성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49년 만에 이 대기록과 타이 기록을 했다.

당시 뮐러는 34경기에서 40골을 넣어 이들이 한 골을 넣는 데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뮐러는 77분마다 1골씩을, 레반도프스키는 58

분마다 한 골씩을 터뜨렸다.

시즌 종료까지 한 경기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면 레반도프스키는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최근 리그 19경기 중 18경기에서 골 맛을 본 그는 2위 안드레 실바(프랑크푸르트·27골)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분데스리가 득점 선두도 굳게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